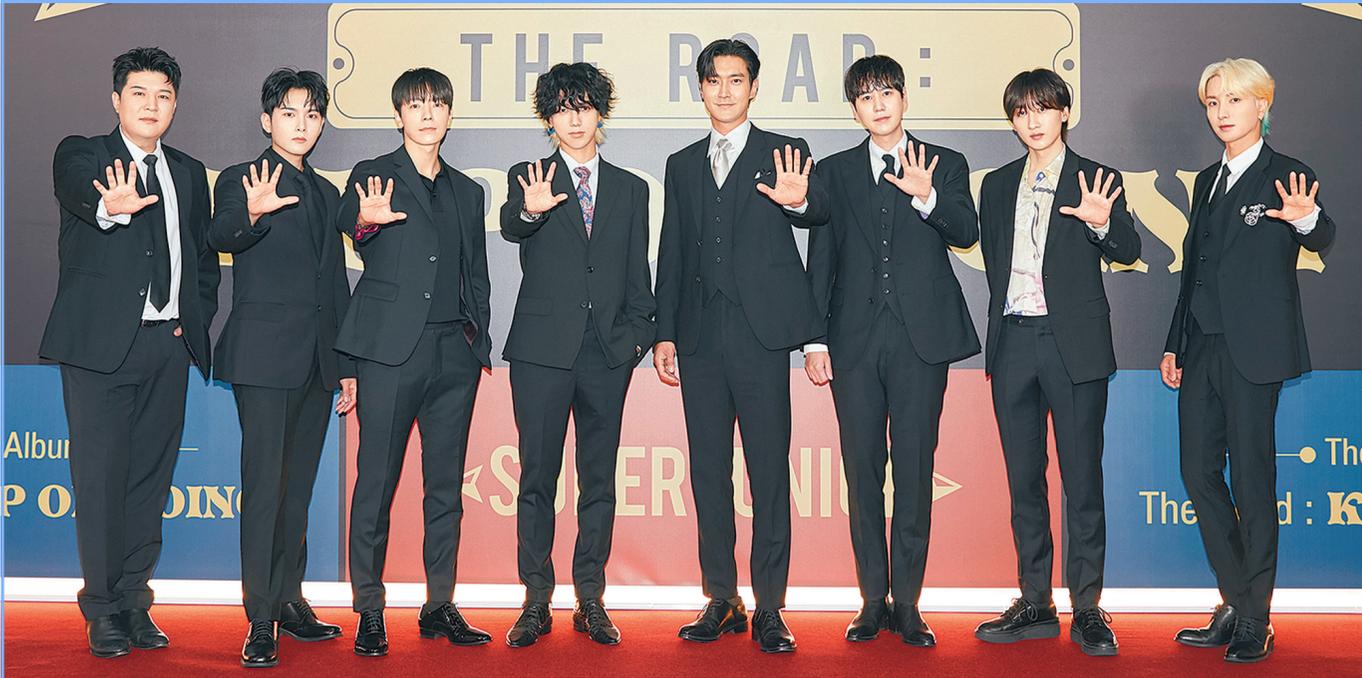


데뷔 18년차 슈퍼주니어, 정규 11집 파트1 '더 로드: 킵 온 고잉' 발표



"우리 슈퍼주니어~예요!" 그룹 슈퍼주니어가 12일 정규 11집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3년 만에 대면으로 '슈퍼쇼'를 열고 팬들과 직접 만난다.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 “롱런 비결? ‘보복’ 무서워 아무도 안나가더라”

타이틀곡 '망고' 포함 총 5곡 담아 보여준적 없는 펑키 팝 장르 도전 "SM에서 정규 11집 가수는 우리뿐 슈퍼주니어의 길은 계속 될거예요"

"항간에는 지겹다고 말하는 것도 아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닐까요?"

이게 바로 데뷔 18년 차 그룹의 여류이자 장수 비결이다. 2005년 데뷔해 '원조 한류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굳건하게 지켜온 슈퍼주니어. 멤버 수도 많아 솔로, 유닛 등 다채로운 형태로 '쫄개고, 쫄개'서 '인해전술'식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수, 연기, 예능, 뮤지컬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 좀처럼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이들의 장점이다.

슈퍼주니어는 12일 오후 정규 11집 첫

번째 파트 '더 로드: 킵 온 고잉'(The Road: Keep on Going)을 발표하기에 앞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SM의 역사가 길고 수많은 아티스트가 있었지만 정규 11집을 낸 가수는 우리가 최초"라면서 "케이(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 슈퍼주니어라는 이름이 케이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기에 알게 준비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멤버들은 '롱런'의 비결에 대해 "SM이라는 좋은 회사가 있기에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다. 곧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다"며 개그맨 못지않은 유머감각을 드러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멤버들이 겁이 많다. 한 사람이 미친 척하고 '나 안 할 거야'하고 나가버리면 그 팀이 깨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멤버가 없다.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멤버들에게 반쯤 죽는다. 아니면

누군가 나간다고 하면 나머지 멤버들이 얼마나 욕을 할지 잘 알기 때문이지 않을까.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다."

연습생 시절을 포함해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다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안다. 가족과도 같은 사이다. 그 시간을 함께하며 이들은 '원조 한류 아이돌'로 사랑받았다.

'소리 소리', '미인아' 등 히트곡을 내놓았고, 특히 2011년 발표한 '미스터 심플'로 대만 최대 온라인 음악사이트 케이케이(KK)박스에서 100주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제는 18년차 한류아이돌 그룹의 위엄을 보여줄 때다. 새 앨범에는 타이틀곡 '망고'(Mango)를 비롯해 '돈트 웨이트'(Don't Wait), '마이 워시'(My Wish) 등 총 다섯 곡을 담았다. 하반기에는 신곡을 더 추가해 파트2를 내놓을 예정이다.

"슈퍼주니어의 길은 계속된다는 의미를 담은 음반이다. 우리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싶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SMCU(SM Culture Universe)에서 슈퍼주니어가 '우주 여행자'라는 세계관을 맡았다. 여러 행성에서 각자 여행하다가 이번 11집을 통해 모이게 되는 방식이다."

타이틀곡은 슈퍼주니어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펑키 팝 장르의 곡이다. 시원은 "사랑을 감추는 사람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채워주겠다고 저돌적으로 들이대는 곡"이라며 "우리가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은 부분을 직·간접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인은 시간이 지나면 영향력 등 뉘즈가 약해지고 잊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팬과 끈끈해지고 단단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룹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박재범·임창정·탑... '술'과 사랑에 빠지다

박재범 '원소주' 출시하자마자 대박 임창정 막걸리·탑은 와인 사업 나서

가수 박재범·임창정, 그룹 빅뱅 출신 탑(최승현) 등 스타들이 '술'과 사랑에 빠졌다. 저마다 소주, 막걸리, 와인 등을 만들어 판매하며 주류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일부 제품이 스타 파워에 힘입어 품귀 현상을 빚는 등 인기를 끌면서 관련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재범이 주류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 올해 2월 주류제조회사 원소퍼리츠를 설립, '원소주'를 출시해 성과를 거뒀다. 알코올 도수 22%의 증류식 소주로, 출시 일주일 만에 초기 생산물량인 2만 병을 모두 팔아치웠다. 4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하루 한정 생산한 2000병이 1분 만에 동나기도 했다.

12일 편의점 브랜드인 GS25에서 팔기 시작한 두 번째 제품 '원소주 스피릿'도 '폴질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SNS와 블로그 등에는 "날 밤자마자 있는데 이미 다 팔렸다"며 구입에 실패했다는 후기가 잇따랐다. 편의점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리 재고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SNS 게시물까지 나온다.

임창정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시류에 올라탔다. 임창정은 최근 자신의 이름을 딴 '임창정 미숫가루 꿀막걸리'를 출시했다. 소주 브랜드도 새롭게 준비할 방침이다. 백 대표는 양조장을 차리고 생막걸리인



'백걸리'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탑은 연예계 활동을 잠시 미뤄두고 와인 브랜드 '티스팟'을 최근 선보였다. 와인 선별도 직접 하는 등 사업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연예계 대표 애주가로 꼽히는 이들은 오랫동안 관련 사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범은 2018년 노래 '소주'(SOJU)를 내놓으며 관심을 드러냈다. 탑도 2017년 아르헨티나의 한 포도밭을 샀다고 밝히면서 와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표했다.

이들은 양조장과 기술적 협업을 통해 제품을 내고 있다. 임창정과 함께 막걸리를 제조한 조은술세종 경기용 부사장은 12일 "이들의 관심사와 독특한 술을 찾는 MZ세대의 새 주류 트렌드가 맞물려 화제물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력이 좋은 양조장과 함께 주류 상품화를 논의하는 연예인들이 많다"며 당분간 관련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K드라마 이어 'K뮤지컬'...세계시장 겨냥

'사랑의 불시착' 뮤지컬 9월에 첫 선 '케이팝'은美 브로드웨이 무대 올라

이젠 '케이(K) 뮤지컬'이다. 드라마와 영화에 이어 한국 뮤지컬이 해외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대표적인 류 드라마로 꼽히는 '사랑의 불시착'이 뮤지컬로 재탄생하는 가운데 한국 창작 뮤지컬도 연이어 세계시장을 겨냥한다. 뮤지컬의 본고장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는 케이팝을 주제로 한 작품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사랑의 불시착'은 9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다. 2019년 일본에서 4차 한류붐을 일으킨 작품을 원작 삼아 기획 단계부터 해외 무대를 염두하고 있다. 12일 관계자에 따르면 다수의 국가에서 공연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27일~30일 한국 뮤지컬을 소개하는 '케이 뮤지컬 위크'가 열린다. 그룹 뉴이스트 출신 백호, SF9 유재앙, 아스트로 유산하 등이 출연하는 '알타 보이즈'와 2PM 준케이, 골든차일드 홍준찬이 주연하는 '이퀄', 에이핑크 김남주, 하성운 등이 나서는 '태양의 노래' 등이 VOD 상영회로 소개된다. 김남주, 송건희 등은 직접 무대에 올라 현지 관객과 소통한다.

앞서 최근 폴란드의 문화예술축제 '바르샤바 뮤직 가든스 페스티벌'에는 김소형이 타이틀롤로 나선 '마리 퀴리'가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작품을 관람한 마리 퀴리의



'케이뮤지컬'이 세계로 뻗어가 콘텐츠의 힘을 보여줄 기세다. 사진은 뮤지컬로 만들어지는 '사랑의 불시착'의 포스터. 사진제공 | (주)빅뮤직

후손인 한나 카레제프스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연이었다. 눈물까지 났다"고 밝혔다.

11월 20일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는 케이팝 스타들이 대거 주연하는 뮤지컬 '케이팝'이 막을 올린다. 스타들이 하룻밤의 특별한 콘서트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야기로, 예프엑스 출신 루나, 스피카의 김보형, 미쓰에이 민, 유키스 케빈 등이 참여한다. 한인 2세 극작가 제이슨 김이 대본을 썼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 넷플릭스 "예능 제작 늘릴것"

전세계 히트 친 '솔로지옥' 시즌2 가을 공개 유재석·김연경 등 '코리아 넘버원'도 준비 중

넷플릭스가 가을부터 방송인 유재석부터 성악가 조수미까지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을 내세운 예능 오리지널 콘텐츠를 대거 선보인다. 2018년 이후 '범인은 바로 너!', '먹보와 탈보', '솔로지옥' 등 여섯 편의 예능 콘텐츠를 제작한 넷플릭스는 "앞으로 한두 달에 한 작품씩 꾸준히 공개할 수 있도록 제작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데이팅 소재의 '솔로지옥' 시즌2를 가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시즌1이 한국 예능 콘텐츠 최초로 넷플릭스 '세계 많이 본 TV프로그램' 5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면서 시즌제로 확장했다. 또 유재석과 배구선수 김연경, 배우 이광수가 전국 곳곳의 '전통' 노동현장을 체험하는 '코리아 넘버원', 조수미를 비롯해 가수 임재범·박정현, 남매 듀오 악뮤 등이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공연을 여는 음악 예능 콘텐츠 '데이크원'도 공개를 앞두고 있다.

넷플릭스코리아 예능·논픽션 콘텐츠팀의 유기환 매니저는 12일 서울 명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대한 스케일이 특징인 포맷부터 시청자에게 익숙한 야외 버라이어티 장르까지 다양하게 제작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징어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등 드라마 콘텐츠에 비해 해외 성과가 크지 않지만, 국내 구독자를 겨냥하는 '로컬 퍼스트(Local First·지역 우선) 전략'을 위한 필수 요소로써 예능 콘텐츠 확충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제작 방식의 변화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모든 콘텐츠를 사전제작하면서 예능 트렌드를 그때그때 담아내기에는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이에 대해 유 매니저는 "제작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면서 "영상당 20여 분가량인 미드폼(Mid-Form) 포맷, 지속해서 TV와 동시 공개하는 방식 등 새로운 시도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3

아이돌 출신 A씨 보이토폰싱 범죄 가담 후 자수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A씨가 보이토폰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보이토폰싱 범죄에 속은 B씨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지리가 있다'는 글을 보고 일을 시작했으나 곧 보이토폰싱 업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피해 금액은 B씨에게 되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산: 용의 출현' 독도함 장병 초청 특별 시사회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 22일 독도함에서 육·공군 장병 등 관객들을 초청해 특별 시사회를 연다. 영화 시사회 전 김한민 감독을 비롯해 박해일·변요한 등 주연배우들의 무대인사도 진행된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번 시사회는 한산 대첩 430주년을 맞아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27일 개봉하는 영화는 2014년 1761만 명을 동원하며 국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기획한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 중 두 번째 작품이다.

박성웅·신승환 등 채널A '배우는 캠핑장' 서 무친다

배우 박성웅, 신승환, 홍종현이 채널A와 ENA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예능프로그램 '배우는 캠핑장'으로 뭉친다. 25일 첫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캠핑장 운영이 처음인 세 명의 초보 사냥꾼들이 가지각색 특별한 사연을 가진 손님들과 함께 인생을 배우는 캠핑 리얼리티다. 세 배우들은 캠핑장을 찾은 손님들을 위해 맞춤형 웰컴 푸드부터 특별 서비스 메뉴까지 준비하며 고객 만족을 위해 힘을 기울인다. 제작진은 "시청자분들과 개릴라 캠핑장을 찾아주셨던 분들께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드리겠다"고 밝혔다.